



침출액을 이용한 지렁이 퇴비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

이창호[†], 김종오*, 최석순**

양산대학 기업시스템계열[†], 경상대학교 건설공학부(도시)/환경지역발전연구소*,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**
(2007년 2월 15일 접수, 2007년 3월 20일 채택)

A Study on Establishment of Vermicomposting Index Using Leakage Water

Chang-Ho Lee[†], Jong-Oh Kim*, Suk Soon Choi**

Division of Industrial Management System, Yangsan College, Division of Construction Engineering/EDR,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*,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, Semyung University**

ABSTRACT

In the present work, the vermicomposting index was investigated using leakage water from sludge to develop the process of mechanization and automation in the earthworm-cast treatment. The in situ sewage sludge was used for batch and continuous experiments. Due to different treatment processes, the physico-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extracted from sludge was the similar change pattern. However, some items, such as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(ORP), pH, Electrical Conductivity (EC) and $\text{NH}_3\text{-N}$, showed the distinct changes between pre- and post- vermicomposting. Also, The ORP and EC were the best parameters for the vermicomposting index. These results offered that the present vermicomposting technology was an actual earthworm-cast treatment.

Keywords : sewage sludge, vermicomposting,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(ORP), Electrical Conductivity (EC)

초 록

분변토 처리의 기계화 및 자동화 공정 개발을 위하여,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 침출액을 이용한 지렁이 퇴비화 지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. 이 연구에서는 회분식 및 연속식 실험을 위하여 현장 하수 슬러지가 사용되었다. 슬러지 처리방법에 따른, 발생하는 침출수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는 거의 유사함을 나타내었다. 그러나, 산화환원전위, pH, 전기전도도, $\text{NH}_3\text{-N}$ 항목에서는 퇴비화 전후,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. 또한, 지렁이

[†]Corresponding author (hangmu3315@hanmail.net)

이 퇴비화 지표 설정에 가장 적합한 변수들은 ORP과 EC임을 알 수 있었다.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실제적으로 분변토 처리가 이루어지는 지렁이 퇴비화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.

핵심용어 : 하수슬러지, 지렁이 퇴비화, 산화환원전위, 전기전도도

1. 서론

국내 지렁이 이용기술은 대부분 1970년 후반 도입 초기의 이용기술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. 특히 넓은 부지의 이용과 인력에 의존하는 처리공정 및 사계절에 의존하는 지렁이 생육환경 등은 유기성 물질의 연속처리를 통한 지렁이 이용기술의 산업화 및 정착화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¹⁾. 이에 최근 지렁이 이용기술의 기계화 및 자동화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중이다²⁾. 지렁이 이용기술의 처리공정은 유기성폐기물 급이와 지렁이 생육환경 조절을 통한 처리 및 처리 후 발생하는 분변토 분리 등의 공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, 최근에 인력에 의존하는 각 단위공정에서 일부분 기계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⁾. 그러나 처리 후 발생하는 분변토 분리의 단위 공정에서는 기계화 및 자동화 공정이 미흡한 상태로, 지렁이 이용기술의 기계화 및 자동화 공정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. 아울러 유기성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분변토 분리의 연속적 배출을 위한 기계화 및 자동화 공정을 위해서는 유기성폐기물 처리 전과 처리 후 발생하는 분변토의 과학적 지표설정이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.

본 연구에서는 분변토의 과학적 지표설정을 통하여, 분변토 분리공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. 이를 위하여, 여러가지 하수슬러지의 처리 전 후의 침출액을 이용한 이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, 지렁이 퇴비화 지표 설정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.

2. 실험재료 및 방법

2.1 실험재료

본 연구에 사용된 지렁이는 김해시 Y양식장에서 인공 양식중인 붉은줄지렁이(*Eisenia andrei*)를 이용하였으며, 침출액을 이용한 지렁이 퇴비화 지표설정 실험에 사용한 하수슬러지는 하수 처리방법별 특성 조사를 위하여 각각 활성슬러지법, 회전원판법, 산화구법 및 1차처리 등의 공법으로 처리 후 발생한 각각의 하수슬러지를 실험실에 운반한 후 1일 경과된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였다. 또한 실험에 사용된 처리장치는 [Fig. 1]과 같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850×550×1,000mm 크기의 처리장치에 온도조절기와 수분조절기를 부착하여 지렁이 사육환경 조건을 자동조절(온도 23±5℃, 함수율 70±5%) 하였으며 처리 장치의 하단 부분에는 침출수 수집을 위한 침출통을 설치하였다



[Fig. 1] Photograph of vermicomposting experimental unit.

2.2 실험방법

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의 침출액 특성조사를 통한

지렁이 퇴비화 지표설정을 목적으로 실험장치 하단부분에 분변토를 20cm 두께로 깔고 실험장치 상단 부분에 물을 살수시켜 1시간 경과 후 침출액을 분석하여 분변도 지표를 설정하였다. 또한 분변도 지표설정을 통하여 지렁이 5kg를 입식 한 후 [Table 1]과 같이 하수슬러지를 발생원별로 각각 활성슬러지법, 산화구법, 회전원판법 및 1차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10cm 두께로 3일간 투입하였다. 또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하수슬러지 처리전 후 1일 간격으로 일정량의 물을 실험장치 상단부분에 살수하여 1시간 경과 후 침출액을 분변도 침출액과 비교하여 지렁이 퇴비화 지표를 설정하였다. 이때 pH, ORP, EC, NH₃-N, NO₃-N, T-N, T-P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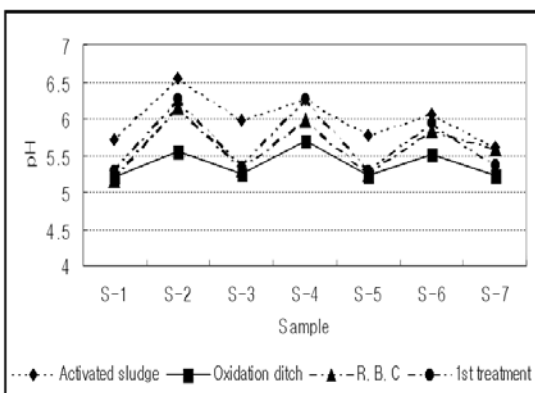
[Table 1] Feeding Ratio of Sewage Sludge for the Vermicomposting Index

Phase	Feeding volume (cm)	
	Cast	Sewage sludge
S-1	20	0
S-2	20	10
S-3	30	0
S-4	30	10
S-5	40	0
S-6	40	10
S-7	50	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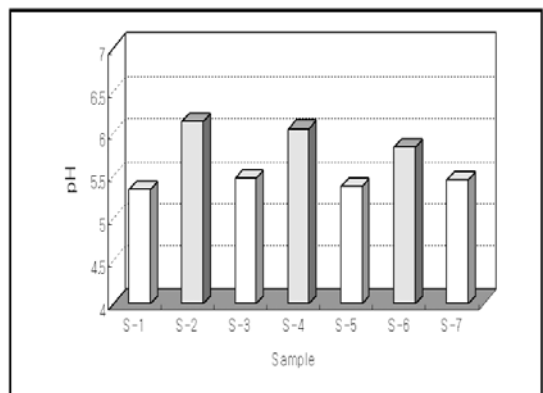
3. 결과 및 고찰

3.1 pH의 변화

지렁이를 이용하여 유기성폐기물의 처리 전 후의 이화학적 특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⁴⁾ 그러나 현장에서 유기성폐기물 처리 후 분변도 분리시 이러한 이화학적 특성 보다는 물리적 방법인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. 이러한 방법은 일반노지에서 연속적으로 분변토를 분리하지 않고 처리 후 수개월의 시간 경과 후 분변토를 분리하는 기존의 운영방법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⁵⁾. 그러나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하수슬러지를 연속적으로 처리 할 때는 처리 후 분변도 분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이때 지렁이가 하수슬러지를 처리 한 후 발생하는 분변토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 분리하면 처리장치의 기계화 및 자동화 공정에 많은 어려움을 미친다. 이에 퇴비화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전 후의 이화학적 특성 파악을 통하여 지렁이 퇴비화 지표 설정을 목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 침출액의 pH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[Fig. 2]에 나타내었다. 발생원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, 각각의 하수슬러지 처리 전후 pH 값 차이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.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의 평균 pH 변화는 [Fig. 3]에 나타난 바와 같이, 하수슬러지 처리전(S-2, S-4, S-6)



[Fig. 2] Variation of the pH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s.



[Fig. 3] pH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5.83~6.13에서 처리 후(S-3, S-5, S-7) 5.38~5.47으로서 하수 슬러지 처리 후 pH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하수슬러지 처리 후 pH와 분변토의 pH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지렁이 퇴비화 지표 설정에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된다.

한편, pH는 퇴비의 원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, 퇴비화 초기에는 유기산이 발생되어서 산성화가 이루어지며, 퇴비화가 진행되면서 암모니아 발생으로 인하여 알칼리성으로 되고 퇴비화 말기에는 암모니아가 질산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H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⁶⁾.

3.2 산화환원전위의 변화

하수슬러지 발생원별에 따른 처리 전 후의 ORP는 [Fig. 4]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생원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S-2 (분변토 20cm: 하수슬러지 10cm)에서 하수슬러지 발생원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였다. 이는 지렁이 안전층의 높이가 낮은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의 평균 ORP는 [Fig. 5]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전 S-2, S-4, S-6에서 56.37~74.7mV 범위의 값이 나타났으나, 처리 후 S-3, S-5, S-7의 값이 분변토(S-1)의 102.5mV와 유사한 100.5~1003mV의 값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ORP는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 값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, 퇴비화 장치에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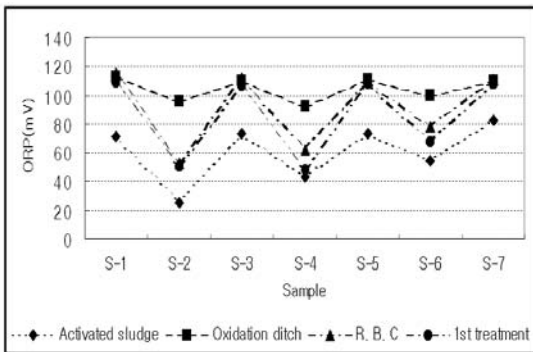
시 측정이 간단하여 지렁이 퇴비화 지표 설정에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된다.

3.3 전기전도도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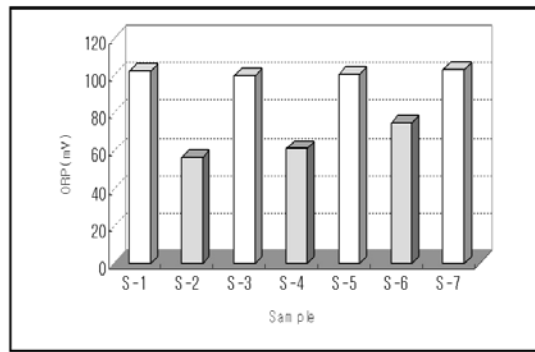
일반적으로 퇴비화 진행 중에 EC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원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⁾. 하수슬러지 발생원별에 따른 처리 전 후의 전기전도도는 [Fig. 6]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활성슬러지법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가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.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의 평균 EC는 [Fig. 7]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전(S-2, S-4, S-6) 0.97~1.08ms/cm에서 처리 후(S-3, S-5, S-7) 분변토(S-1)의 1.23ms/cm과 유사한 1.14~1.23ms/cm의 값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하수슬러지 처리 전후 값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 지렁이 퇴비화 지표 설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된다.

3.4 암모니성 질소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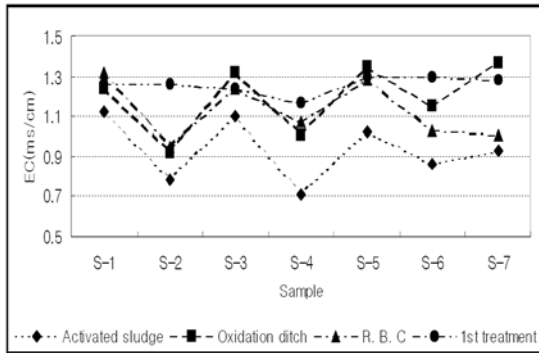
NH₃-N는 하수슬러지 발생원별에 따른 처리 전 후의 특성이 [Fig. 8]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하수슬러지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. 또한 처리 전 후에도 [Fig. 9]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리 전(S-2, S-4, S-6)과 처리 후(S-3, S-5, S-7) 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, 처리 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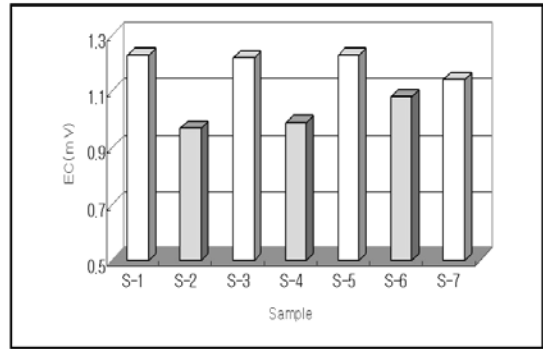
[Fig. 4] Variation of the ORP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s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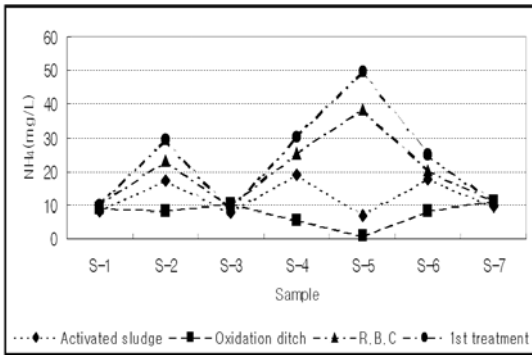
[Fig. 5] ORP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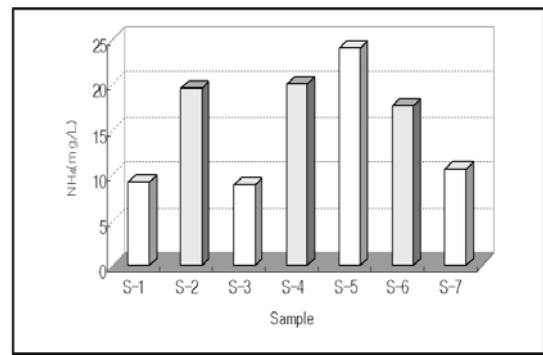
[Fig. 6] Variation of the EC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s.



[Fig. 7] EC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

[Fig. 8] Variation of the NH3-N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s.



[Fig. 9] NH3-N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(S-5)에도 분변토(S-1)의 값과 유사하지 않아 지령이 퇴비화 지표 설정항목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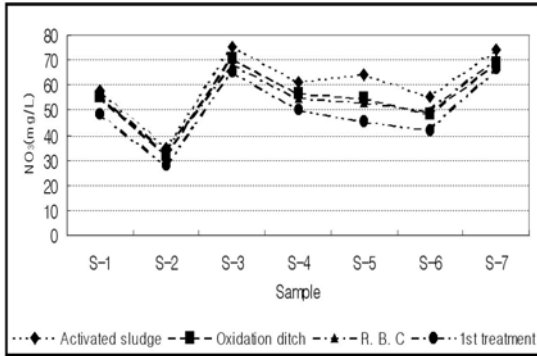
3.5 질산성 질소의 변화

NO₃-N는 [Fig. 10]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,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의 평균 NO₃-N는 [Fig. 11]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전 (S-2, S-4, S-6) 40~62mg/L 범위의 값에서 처리 후(S-3, S-5, S-7) 42~86mg/L로 나타나 분변토(S-1)의 특성(51mg/L)과 유사하지 않고 또한 처리 전 후의 특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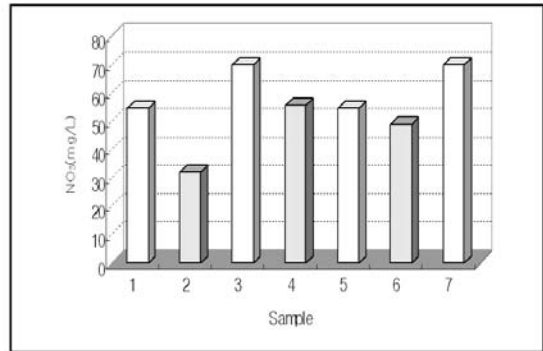
령이 퇴비화 지표 설정항목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.

3.6 총질소와 총인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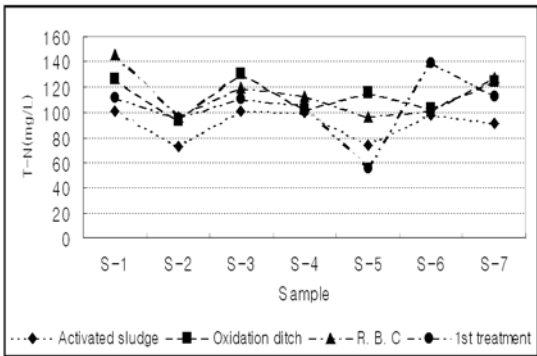
T-N과 T-P는 [Fig. 12] [Fig. 14]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별에서 각각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며, 하수슬러지 처리 전 후의 특성에서는 [Fig. 13], [Fig. 15]에 나타난 바와 같이 T-N은 처리 전(S-2, S-4, S-6) 89.72~110.72mg/L범위에서 처리 후 (S-3, S-5, S-7) 85.69~115.65mg/L의 값과 T-P는 처리 전(S-2, S-4, S-6) 9.87~11.78mg/L에서 처리 후(S-3, S-5, S-7) 8.99~18.43mg/L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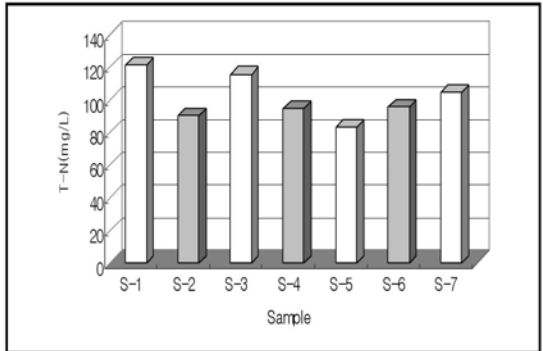
[Fig. 10] Variation of the NO₃-N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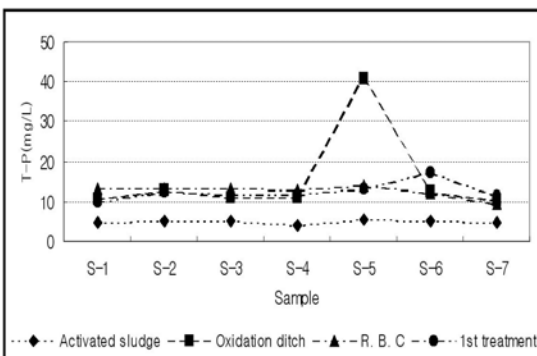
[Fig. 11] NO₃-N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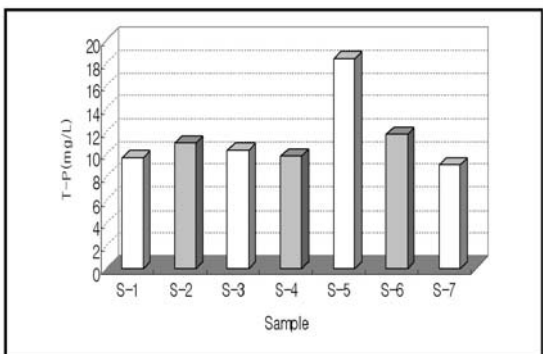
[Fig. 12] Variation of the T-N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s.



[Fig. 13] T-N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

[Fig. 14] Variation of the T-P in vermicomposting according to various sewage sludges.



[Fig. 15] T-P variation of vermicomposting for sewage sludge.

나타나 처리 전 후의 특성변화가 작을 뿐 아니라, 처리 후의 값이 분변토(S-1)와 값도 유사한 관계

가 나타나지 않아 지렁이 퇴비화 지표 설정항목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.

4. 결론

분변토의 과학적 지표설정을 통하여 분변토 분리 공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 가능성 검토한 결과,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.

1.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시 하수처리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이화학적 특성변화는 작게 나타나 지렁이 이용기술의 기계화 및 자동화 적용시 하수처리 방법에 관계 없이 공통적 이화학적 지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.
2. 항목별 처리전 후의 차이는 ORP>pH>EC>NH₃-N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 따라서 침출액을 이용한 지렁이 퇴비화 장치의 퇴비화 지표 설정에 적합한 항목은 측정 장치의 현장 설치 및 측정이 용이한 ORP 와 EC 항목으로 판단되었다.
3. 향 후 현장 적용 후 처리용량의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참고문헌

1. 김종오, 이창호, “지렁이 퇴비화 운영사례 및 개선방향”, 폐기물자원화, 9(4), pp. 89~98 (2001).
2. 이창호, “지렁이 이용기술의 자동화 가능성 연

- 구(Ⅱ), 이창호, 제 4회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전 심포지움, pp. 64~67 (2001).
3. J. O. Kim, C.H. Lee, and H. G. Choi. “Recent trends of vermicomposting technology for treating organic wastes in Korea”, Proceedings of The Vermilennium-Interantional Conference on Vermiculture and Vermicomposting, Kalamazoo MI., USA. (2000).
4. Tri-Tech Laboratories, “worm treatment produces class-A biosolids. Bio-Cycle (1996).
5. J. O. Kim, and C. H. Lee, “A comparative study of manure worms and redworms to treat sewage sludg”., Proceedings of The Vermilennium - Interantional Conference on Vermiculture and Vermicomposting. Kalamazoo, MI., USA. pp. 2~7 (2000).
6. 오과칠, “지렁이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”, 제2회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전 심포지움, pp. 75~80 (2000).
7. 이창호, “지렁이 이용기술의 자동화 가능성 연구(1), 제3회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전 심포지움, pp. 33~42 (2001). 